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연은모¹, 최효식^{2*}

¹영남대학교 교양학부, ²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A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Self-esteem Development Trajector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Eun Mo Yeon¹, Hyo-Sik Choi^{2*}

¹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초 4)부터 중학교(중 3)까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어떤 발달궤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동일 시점에서의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교사)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 1년 전의 과거 시점에서의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교사)가 1년 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의 6개년도 자료를 분석했으며, 분석 대상은 1,296명이다. 분석 결과, 첫째, 무조건 분할함수 성장 모형에 기초했을 때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동안은 증가하다가, 중학교 시기에서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초기치, 1기 변화율, 2기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치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동안의 자아존중감의 증가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치가 높을수록 중학교 시기 동안의 자아존중감 감소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 결과, 가족 지지와 교사 지지의 동시효과는 6개년도 모두, 친구 지지의 동시효과는 중 3시기를 제외한 5개년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 지지의 지연효과는 초 4, 초 5, 초 6 시점이 1년 뒤 시점에, 친구 지지의 지연효과는 초 6, 중 2 시점이 1년 뒤 시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사 지지의 지연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서는 가족,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ing trajectory of self-esteem and to explore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s of social supports(family, friends, and teacher) of 4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to 9th graders in middle school. The subjects were 1,296 multiethnic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Panel Study(MCAPS) from 2011 to 2016. The results of piecewise growth function showed that students' self-esteem was increased during upper grade in elementary school but soon decreased during middle school. Individual differences were found at initial, 1st and 2nd changing status. Students with higher level at initial status in self-esteem showed less increased pattern during elementary school but greater decreased pattern during middle school. In addition, supports from family and teacher showed contemporaneous effects across all 6 years while supports from friends showed such effects only for 5 years except 9th grade. Lagged effects of family were found in elementary school and significant lagged effects with supports from friends were found at 6th and 8th grad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social support of family, friends, and teacher has an important role to encourage the self-esteem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words : Self-Esteem, Social Support, Piecewise Growth Modeling, Contemporaneous Effects, Lagged Effect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March 26, 2020

Accepted September 4, 2020

Revised May 7, 2020

Published September 30, 2020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성공과 안녕감의 중요 예측요인이며[1], 청소년 시기는 자아존중감 발달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2 재인용].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는 일반 가정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해 왔으며, 가족, 친구, 교사 등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 변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4].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는데[5-6],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다수 선형변화 성장모형 및 비선형변화 성장모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학교급 변화의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의 자아존중감 변화 특성을 확인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횡단적 접근을 했거나, 종단적 접근을 한 연구들 또한 한 시점에 국한하여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봤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시기까지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에 가족,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반복측정 종단자료 분석 시 특정 처치 또는 사건으로 인해 관심변인의 궤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비연속적인 특성을 갖는 자료 분석에 적합하다[7-9].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이나 재능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1]. 청소년 대상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적응, 진로탐색행동, 스마트폰 중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10-14].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 사회적 적응,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15-17]. 즉,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적응의 예측변인이며,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함양은 중요하다[18].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시기 동안 변화한다. 일반 가정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자아존중감이 매년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을 이차함수 모형에 기초하여 확인한 한 연구는 초등학교 시기(초4-초6)에는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다가 중학교 시기(중1-중2)에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5], 일차함수 모형에 기초한 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초4-초6)부터 중학교 시기(중1-중2)까지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내적 지각, 경험, 타인으로부터 받는 외적 정보에 의해 발달한다 [20 재인용].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형성하는 것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이끌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평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관계측정이론(Sociometer Theory)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수용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심리적 지표이기 때문에 [21],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이끌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랑받고 있다는, 가치있게 여겨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4 재인용]. 많은 경험적 연구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3-4], 사회적 지지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의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2].

자아존중감 관련 연구에서 성별의 효과는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다는 연구[23-24],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다는 연구[25],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26]가 혼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선형변화 성장모형 및 비선형변화 성장모형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시기에서 중학교 시기로 학교급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동시효과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함께 확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초 4)부터 중학교(중 3)까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어떤 발달궤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동일 시점에서의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교사)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 1년 전의 과거 시점의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교사)가 1년 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 1) 초등학교 고학년(초 4)부터 중학교(중 3)까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 2)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교사)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가 나타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도 자료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응답 자료가 모두 있는 1,29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자아존중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초4, 2011년)부터 6차년도(중3,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학급입원(반장, 부반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7].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75$, 2차 $\alpha=.80$, 3차 $\alpha=.81$, 4차 $\alpha=.82$, 5차 $\alpha=.81$, 6차 $\alpha=.83$ 로 확인되었다.

2.2.2 사회적 지지: 가족, 친구, 교사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지지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초4, 2011년)부터 6차년도(중3,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4점)'를 사용하였다[27].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92$, 2차 $\alpha=.94$, 3차 $\alpha=.94$, 4차 $\alpha=.95$, 5차 $\alpha=.95$, 6차 $\alpha=.95$ 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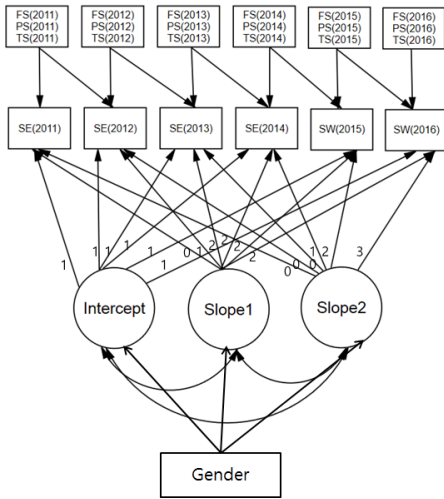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친구의 지지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초4, 2011년)부터 6차년도(중3,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1-5차년도는 7문항, 6차년도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를 사용하였다[27].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96$, 2차 $\alpha=.96$, 3차 $\alpha=.97$, 4차 $\alpha=.97$, 5차 $\alpha=.97$, 6차 $\alpha=.95$ 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지지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초4, 2011년)부터 6차년도(중3,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1-5차년도는 6문항, 6차년도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를 사용하였다[27].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94$, 2차 $\alpha=.95$, 3차 $\alpha=.96$, 4차 $\alpha=.96$, 5차 $\alpha=.96$, 6차 $\alpha=.92$ 로 확인되었다.

2.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데이터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Mplus 8.3,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28]를 참고하였다. 분석은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활용하여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 분석,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무조건모형 분석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된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조건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 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를 구분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초기치의 요인 적재치는 모두 1로 고정, 1차 시점(초등학교)의 변화율 요인 적재치는 [0, 1, 2, 2, 2, 2]로 설정, 2차 시점(중학교)의 변화율 요인 적재치는 [0, 0, 0, 1, 2, 3]으로 설정하였다[29]. 조건모형에 통계변인은 성별, 예측변인은 가족의지지, 친구의지지, 교사의지지 변인을 투입하였다.



※ SE: Self-esteem, FS: Family support, PS: Peer support, TS: Teacher support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1차년도(2011년, 초4) 자료에 기초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636명(49.1%), 여자 660명(50.9%)이며, 연령은 9세 97(7.5%), 10세 1,150명(88.7%), 11세 43명(3.3%), 12세 5명(4%), 13세 1명(1%)이다. 연령은 다문화청소년 패널 구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연령을 의미한다[27]. 거주지역은 서울 132명

(10.2%), 경인(경기도+인천) 331명(25.5%), 충청 및 강원권 257명(19.8%), 경상권 302명(23.3%), 전라 및 제주권 274명(21.1%)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96)

Variables	Category	N	%
Adolescents' gender	Male	636	49.1
	Female	660	50.9
Adolescents' age	9	97	7.5
	10	1150	88.7
	11	43	3.3
	12	5	.4
	13	1	.1
Residence	Seoul	132	10.2
	Gyeonggi-do/ Incheon	331	25.5
	Chungcheong-do/ Gangwon	257	19.8
	Gyeonsang-do	302	23.3
	Jeolla-do/ Jeju-do	274	21.1

3.2 자아존중감 변화패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분할함수 성장모형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 선형변화, 이차변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비교하는 무조건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Table 2 참조), 이차변화 성장모형과 분할함수 성장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변화패턴의 이해와 해석의 용이성이 더 높은[29] 분할함수

Table 2. Model fit indicators for no growth, linear, quadratic, and piecewise growth models

Model	χ^2	df	CFI	TLI	RMSEA(90% C.I.)	SRMR
No growth	224.393***	19	.913	.932	.091(.081-.102)	.083
Linear	92.103***	16	.968	.970	.061(.049-.073)	.032
Quadratic	17.526	12	.998	.997	.019(.000-.037)	.031
Piecewise	16.584	12	.998	.998	.017(.000-.035)	.029

* p<.05, ** p<.01, *** p<.001

Table 3. Unconditional model results of the piecewise growth analysis model

Model	Means	Variations	Correlations
I	3.133***	.151***	S1 with I
S1	.045***	.021***	S2 with I
S2	-.024***	.012***	S1 with S2

I: intercept, S: Slope. * p<.05, ** p<.01, *** p<.001

성장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자아존중감의 변화패턴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평균을 보면 초기치(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3.133($p < .001$), 1기 변화율(중학교 시기) .045($p < .001$), 2기 변화율 $-.024$ ($p < .001$)로 초기치, 1기 변화율, 2기 변화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동안은 증가하다가, 중학교 시기에서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분산 또한 초기치, 1기 변화율, 2기 변화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초기치뿐 아니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치, 1기 변화율, 2기 변화율 간에 상관관계를 보

면, 초기치와 1기 변화율, 초기치와 2기 변화율 간에만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치와 1기 변화율 간에는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초기치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동안의 자아존중감 증가 폭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치와 2기 변화율 간에도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초기치가 높을수록 중학교 시기 동안의 자아존중감 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사회적 지지의 동시효과, 지연효과

가족,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동시효과, 지연효과를 조건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했으

Table 4. Conditional model results of the piecewise growth analysis model

Effects	Unstandardized estimates	S. E.	Standardized estimates
Family support(4th)→Self-esteem(4th)	.261***	.024	.273
Family support(5th)→Self-esteem(5th)	.15***	.022	.168
Family support(6th)→Self-esteem(6th)	.232***	.022	.252
Family support(7th)→Self-esteem(7th)	.231***	.023	.248
Family support(8th)→Self-esteem(8th)	.282***	.024	.3
Family support(9th)→Self-esteem(9th)	.281***	.024	.288
Family support(4th)→Self-esteem(5th)	.056*	.023	.059
Family support(5th)→Self-esteem(6th)	.054*	.021	.062
Family support(6th)→Self-esteem(7th)	.055*	.023	.059
Family support(7th)→Self-esteem(8th)	.024	.024	.026
Family support(8th)→Self-esteem(9th)	.049	.026	.051
Peer support(4th)→Self-esteem(4th)	.162***	.016	.269
Peer support(5th)→Self-esteem(5th)	.186***	.018	.294
Peer support(6th)→Self-esteem(6th)	.184***	.017	.298
Peer support(7th)→Self-esteem(7th)	.174***	.017	.266
Peer support(8th)→Self-esteem(8th)	.2***	.019	.288
Peer support(9th)→Self-esteem(9th)	-.059	.052	-.088
Peer support(4th)→Self-esteem(5th)	.014	.016	.023
Peer support(5th)→Self-esteem(6th)	.012	.017	.02
Peer support(6th)→Self-esteem(7th)	.05**	.017	.081
Peer support(7th)→Self-esteem(8th)	.01	.017	.015
Peer support(8th)→Self-esteem(9th)	.215***	.056	.304
Teacher support(4th)→Self-esteem(4th)	.083***	.016	.135
Teacher support(5th)→Self-esteem(5th)	.094***	.016	.157
Teacher support(6th)→Self-esteem(6th)	.07***	.015	.119
Teacher support(7th)→Self-esteem(7th)	.051**	.016	.083
Teacher support(8th)→Self-esteem(8th)	.045**	.016	.073
Teacher support(9th)→Self-esteem(9th)	.127***	.015	.196
Teacher support(4th)→Self-esteem(5th)	.028	.016	.046
Teacher support(5th)→Self-esteem(6th)	.012	.015	.021
Teacher support(6th)→Self-esteem(7th)	.005	.015	.008
Teacher support(7th)→Self-esteem(8th)	.018	.015	.029
Teacher support(8th)→Self-esteem(9th)	-.027	.017	-.043
Gender→I	.007	.024	.015
Gender→S1	-.017	.014	-.090
Gender→S2	-.001	.009	-.005

I: intercept, S: Slope. * $p < .05$, ** $p < .01$, *** $p < .001$

며,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조건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chi^2=231.416(df=90, p<.001)$, CFI=.969, TLI=.956, RMSEA=.035, SRMR=.071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 지지의 동시효과는 초 4부터 중 3까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동일 시점에서 가족의 지지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연효과는 초 4 시점이 초 5시점, 초 5 시점이 초 6시점, 초 6 시점이 중 1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지지의 동시효과는 중 3시기를 제외한 초 4부터 중 2까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동일 시점에서 친구의 지지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연효과는 초 6 시점이 중 1시점, 중 2 시점이 중 3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지지의 동시효과는 초 4부터 중 3까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동일 시점에서 교사의 지지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인인 성별이 초기치, 1기 변화율, 2기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초 4)부터 중학교(중 3)까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어떤 발달궤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동일 시점에서의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교사)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 1년 전의 과거 시점의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교사)가 1년 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기초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 결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동안은 증가하다가, 중학교 시기에서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초기치, 1기 변화율, 2기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치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동안의 자아존중감의 증가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치가 높을수록 중학교 시기 동안의 자아존중감 감소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이차함수모형을 활용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는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다가 중학교 1학년부턴 감소하

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 결과[5]와 일치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얼마나 삶을 잘 영위하는지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감소하다가 성인기에 증가하고, 다시 노년기에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22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중학교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사회적 차별 및 정체성 혼란 등의 이유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적 관심 및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둘째,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 결과, 가족 지지와 교사 지지의 동시효과는 6개년도 모두, 친구 지지의 동시효과는 중 3시기를 제외한 5개년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 지지의 지연효과는 초 4, 초 5, 초 6 시점이 1년 뒤 시점에, 친구 지지의 지연효과는 초 6, 중 2 시점이 1년 뒤 시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사 지지의 지연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3-4]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관계측정이론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피드백에 기초해서 발달하는데[30 재인용], 본 연구에서 확인된 동시효과는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를 통한 사회적 피드백이 존중 및 수용의 인식을 증가시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횡단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동시효과뿐 아니라[31], 시간변화에도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족, 친구 지지의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교사 지지의 지연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담임교사가 거의 매년 바뀌는 학교 현장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히 동시효과와 지연효과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가족 지지와 친구 지지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 부모의 가족 내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다문화 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내 건강한 또래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시기까지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탐색했는데, 후

속 연구에서는 학업적 부담이 가증되는 고등학교 시기까지 확장하여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경험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데, 복수의 코호트를 비교, 분석하여 코호트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 또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증가하는 패턴, 중학교 시기에는 감소하는 패턴의 질적으로 다른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부터 중학교 시기까지 대체로 가족, 친구, 교사 지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동시효과, 가족, 친구 지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지연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수용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심리적 지표이기 때문에[21],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가 높은 자아존중감을 이끌 수 있다는 사회관계 측정이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청소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수용되고, 지지받고 있다는 지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References

- [1] U. Orth, R. W. Robins,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23, No.5, pp.381-387, 2014.
DOI: <https://doi.org/10.1177/0963721414547414>
- [2] A. M. Boudreault-Bouchard, J. Dion, J. Hains, J. Vandermeersch, L. Laberge, M. Perron, "Impact of parental emotional support and coercive control on adolescent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distress: Results of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Vol.36, No.4, pp.695-704, 2013.
DOI: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3.05.002>
- [3] S. Luo, Y. Liu, D. Zhang, "Psychological maltreatment and loneliness in Chinese children: The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08, 104573, 2020.
DOI: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9.104573>
- [4] C. W. Chang, R. Yuan, J. K. Che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88, pp.128-134, 2018.
DOI: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8.03.001>
- [5] E. T. Lee, E. K. Lea,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of parents on self-esteem of adolescents in the multicultural family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4, No.4, pp.21-40, 2017.
- [6] C. W. Bong, Y. H. Jeong, S. H. Hong, "A longitudinal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within multi-cultural families: A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using a latent growth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Vol.29, No.3, pp.41-69, 2018.
DOI: <https://doi.org/10.14816/sky.2018.29.3.41>
- [7] C. P. Chou, D. Yang, M. A. Pentz, Y. I. Hser, "Piecewise growth curve modeling approach for longitudinal prevention study", *Computational Statistics & Data Analysis*, Vol.46, No.2, pp.213-225, 2004.
DOI: [https://doi.org/10.1016/S0167-9473\(03\)00149-X](https://doi.org/10.1016/S0167-9473(03)00149-X)
- [8] S. K. Son, H. J. Lee, S. H. Hong, "The effects of school learning activities and friendships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using a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Vol.28, No.3, pp.57-88, 2017.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7.28.3.57>
- [9] S. H. Baek, S. Y. Park, H. W. Chung, "Estimating the longitudinal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via piecewise growth mixture modeling",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56, No.1, pp.187-217, 2018.
DOI: <http://dx.doi.org/10.30916/KERA.56.1.187>
- [10] Y. Y. Cho, H. J. Bae, H. H. Chu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experience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chool,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67, No.4, pp.673-704, 2019.
DOI: <http://dx.doi.org/10.25152/ser.2019.67.4.673>
- [11] K. H. Kim, "A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and depression: Comparison of data from 3 KCYPS surveyed for different period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21, No.2, pp.69-96, 2019.
DOI: <http://dx.doi.org/10.19034/KAYW.2019.21.2.03>
- [12] S. H. Park, K. H. Kim,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school adjustment for the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0, No.6, pp.1063-1078, 2019.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0.6.78>
- [13] H. A. Sim,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areer

- exploration behavior of out-of-school yout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 pp.529-550,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529>
- [14] S. W. Choi, S. H. Kim, “Influence of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on addiction to smart phone: Mediation effect brought in by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2, No.3, pp.365-383, 2015.
DOI: <https://doi.org/10.16983/kjisp.2015.12.3.365>
- [15] J. Y. Yoon, E. J. Hur,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of the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student’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3, No.6, pp.775-798, 2017.
DOI: <https://doi.org/10.24159/joec.2017.23.6.775>
- [16] K. S. Lee,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f multicultural family’s children on social adjustment”,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44, No.1, pp.91-107, 2012.
- [17] P. H. Kim, H. M. Yoon,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in mediation on self-esteem: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7, No.1, pp.25-53, 2020.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20.01.27.01.25>
- [18] A. A. Gardner, H. J. Webb, “A contextual examination of the associ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Jamaican adolescents”, *Youth & Society*, Vol.51, No.5, pp.707-730, 2019.
DOI: <https://doi.org/10.1177/0044118X17707450>
- [19] H. Y. In, “Longitudinal changes in achievement values and self-esteem and their relations to vocational identity across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9, No.4, pp.885-912, 2018.
DOI: <https://doi.org/10.15753/aje.2018.12.19.4.885>
- [20] M. L. A. Mustapha, D. Odediran, “Impact of parental separation on the self-esteem of in-school adolescents in Nig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struction*, Vol.12, No.1, pp.1281-1298, 2019.
DOI: <https://doi.org/10.29333/iji.2019.12182a>
- [21] M. R. Leary, Sociometer theory, In P. A. M. Van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pp.151-159)”, Sage Publications Ltd, 2012.
DOI: <https://doi.org/10.4135/9781446249222.n33>
- [22] S. W. Magro, T. Utesch, D. Dreiskämper, J. Wagner, “Self-esteem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Support for sociometer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43, No.2, pp.118-127, 2019.
DOI: <https://doi.org/10.1177/0165025418802462>
- [23] S. Y. Kim, “A structural analysis of daily stress, self-esteem, emotion regulation to psycho-social adjustment for the high-school students: Multiple-group analysis”, *Forum for Youth Culture*, Vol.35, pp.92-113, 2013.
- [24] B. D. Sohn,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peer isolation, and religion on adolescent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4, pp.131-148, 2016.
- [25] H. S. Lee, “Effects of self esteem, impulsive behavior and mental health on cellular 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6, pp.200-210, 2014.
- [26] Y. R. Park, J. L. Lee, “Relationship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with aggression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7, No.2, pp.61-79, 2011.
DOI: <https://www.nypi.re.kr/archive>
- [27] <https://www.nypi.re.kr/archive>
- [28] J. E. Won, H. W. Chung, “A study of the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s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on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30, No.1, pp.5-37, 2019.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9.30.1.5>
- [29] S. K. Son, H. J. Lee, S. H. Hong, “The effects of school learning activities and friendships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using a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Vol.28, No.3, pp.57-88, 2017.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7.28.3.57>
- [30] M. D. Back, S. Krause, S. Hirschmuller, J. M. Stopfer, B. Egloff, S. C. Schmukle, “Unraveling the three faces of self-esteem: A new information-processing sociometer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43, No.5, pp.933-937, 2009.
DOI: <https://doi.org/10.1016/j.jrp.2009.04.002>
- [31] Y. J. Le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family, teacher, and friend suppor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0, No.2, pp.1197-1210, 2019.
DOI: <https://doi.org/10.22143/HSS21.10.2.85>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